

내 편만 지킨다, 공익신고자까지 때리는 與

로비 제보자 정보 공개해 공격... 소액 주주들 피해는 외면
김민석 “김승원 후보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 민심 역행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스스로 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수사가) 윤석열 정부 때였다는 것은 ‘정략이 부정했는가’라는 후보자 검증의 본질과 무관하다”며 관련자를 인사청문회에 불러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라고 했다. 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김 후보자를 옹호했

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김 후보자 지명은)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했다. 김대표는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관련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 국민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을 2022년 수사기관에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한 정보를 거론했다. 박 최고위원은 “(A씨가) 브로커 양모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측과 친분도 과시했다”며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 등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다 실패

하자 양심을 품고 무차별적으로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브로커 양씨 회사에서 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 제보로 시작된 수사로 양씨와 강씨는 뇌물공여 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국민권의 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 코로나 신약 로비와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액주주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고, 필요하다면 재수사하라”고 했다. 백광재 세종메디칼 실질주주 연대 대표는 “민주당에서 연락은 없었다”고 했다. 김형원·김상윤 기자 기사 A3면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져 취임 뒤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희대 “권력의 간섭 안 돼” 靑 “대법관 빨리 재제청해야”

대법원장, 사법 독립 강조한 날
靑은 기존 후보 중 재제청 압박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치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달 18일 노태약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규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 통보식 제청”이라며 반려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 통보식 제청”이라며 반려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 통보식 제청”이라며 반려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 통보식 제청”이라며 반려했다.

골라 재제청하라는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후보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에 따라 후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대법관 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또다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김은경·김태준 기자 A4면에 계속

‘노란봉투법’ 이어 근로자 추정제 논란

라이더·프리랜서 등 독립 사업자
분쟁 땀 근로자 판단... 혼란 예고

독립 사업자 성격을 갖는 프리랜서 등을 근로자로 우선 판단하는 ‘근로자 추정제’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데 이어 정부가 올해 내 입법 완료 공언하자, 산업계를 지탱해 온 기존 고용·계약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성 전쟁’을 치르고 있는 기

업 입장에서 ‘근로자성 전쟁’이란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이다. 최근 A 보험사는 자사와 위촉 계약을 맺고 일하는 보험 설계사들의 업무 방식을 조사하고 있다. 보험 설계사는 보험 가입자 유지 성과에 따라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독립 사업자다. A사는 이들이 정기적으로 회사의 업무 내용을 공유하거나 출퇴근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했다고 한다. ‘근로자 추정제’ 입법안이 통과되면, 이럴 경우 보험 설계사들이 A사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해 선제적으로 점검에 나선 것이다. 현행 법 체계에선 사업자 성격을 가진 보험설계사·배달기사·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가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자신이 근로자임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공수가 뒤바뀐다. 민사 분쟁에서 이들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가 된다는 건 기업들이 퇴직금, 주휴 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김아사 기자 A2면에 계속

위기의 교도관... “재소자에게 맞았다” 10년새 4배

국내 교정 시설에 정신 질환을 앓거나 고령인 수용자가 급증하면서 교도관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교도관들은 난동을 부리는 수용자를 관리하면서 간호사·요양보호사 역할까지 떠맡는다. 이런 가운데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10년 새 약 4배로 늘었다. 기사 A6면



八面鋒

김승원엔 “볼수록 잘 된 인사”, 옹호인엔 “국민 눈높이서 판단”. 국민 보기에 민주당의 不同視가 불치병.
○
인사혁신처 “공무원 채용 면접 때 구두 신으면 땀신 뺀 것”. ‘대체불가 인사 혁신안’에 공시생들 어리둥절.
○
선거 앞둔 트럼프, ‘전국민 5000달러’ 이어 “100만명에 500달러 건보 환급금”. 買票 스케일도 전조국.

AI 힐링가이드와 마음돌봄 체험

개막식

9월 29일 10:3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프로그램

- 마음 웨이브 탐지 - 스트레스 뇌파진단, 뉴로아로마, 뇌파만다라 생성체험
- 내 감정 맞춤 길잡이 - 로봇명상, 소셜로봇 체험, AI상담
- 내 마음을 돌보는 공간 - Wesound 생인물 반응형 디지털 아트, VR명상

2026. 09.19 (토) - 20 (일)
인사동 토포하우스

2026. 09.29 (화) - 30 (수)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 ZONE

주최 동국대학교

주관 불교학술원 중학연구소

2026
마음돌봄,
미래를 체험하다

뇌파부터 로봇까지,
마음돌봄의 모든 기술 - 여기 다 모였다



사전신청 QR